

漢拏曰邦 제9197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9월 9일 수요일(음력 7월 22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 제주도만 믿었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존폐 기로

REC(Renewable Energy

Cer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서 REC를 발급받고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21개 공급 의무

자에게 판매한다. 발전사가 자체 생

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

이처럼 태양광발전 수익은 SMP

와 REC를 통해 얻어지고 있으나 도

내 발전소들이 올해 상반기 LNG발

전으로 전환하면서 제주SMP단가가

급락해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을 선언한 제주

특별자치도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도내 태양광 발전 사

'CFI2030'은 오는 2030년까지 제 주도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섬

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사

용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을 채워야 한다.

제주 REC가격 지난 1년새 20%이상 급락 사실상 0원 도내 발전소 올 상반기 LNG 전환 REC 판로처 없어 공급인증서 거래 중단된 상태로 사업자들 고사 위기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 력을 생산해 SMP(계통한계가격)를 받고 보조금 성격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시장에 내 다팔아 수익을 내고 있으나 올해 SMP가격이 급락하면서 태양광 발 전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다른 지방에 비해 높게 책정해 주 었던 제주지역 SMP는 갈수록 육지 부와 비슷해지고 있으며, REC는 지 난 1년 사이에 20%이상 급락하면서 사실상 0원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 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전기농사협동 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SMP는 kWh당 125원, 육지부는 kW h당 56원이지만 갈수록 가격 차이 가 좁혀지고 있다. REC는 지난해 152원에서 지난달 119원으로 전년대 비 22%이상 하락했다.

SMP(System Marginal Price) 는 발전사업자가 생산된 전기를 한 전에 판매해서 받는 가격이고 1kWh= 1SMP이다.

것이다.

도내 한 태양광 농가는 "태양광 사 업을 위해 지목을 변경하면서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 금을 물게 됐는데 여기에다 올해 SMP가 떨어지고 REC가격은 0원이 다보니 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50%이 상 감소했다"면서 "태양광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현재 도내 발전사들 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비율을 더 높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 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전기농 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제주도의 정책을 믿고 많은 시설비용부담을 떠안은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 는데 올해 전력가격이 급락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 설을 할 경우 물류비용이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적 여 건과 현재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저 리의 중소기업자금 지원 등이 필요 하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에서 태양 광발전사업을 유도했기 때문에 적절 한 전력가격 형성으로 태양광 농가 에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 확산에 기부↑

공동모금회 · 적십자사 등 작년 보다 7억·10억 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여 건 속에서도 제주지역 내 기부 행렬 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 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따르 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에서 기탁 된 모금액과 물품이 전년보다 큰 폭으 로 증가했다. 대기업 등 법인 기부가 가장 많이 늘었고 개인 기부도 증가했 으며, 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1~8 월 총 모금액은 64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56억5900만원 대비 약 7억원 늘었다. 법인 기부가 지난 해 28억9400만원에서 올해 34억2000 만원으로 약 5억원이 증가했고, 개인 기부도 지난해 27억6500만원에서 29 억9400만원으로 약 2억원 늘었다.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에 모인 모 금액 역시 7월말 기준 29억7000만원 으로, 지난해 동기간 19억300만원 대비 10억 이상 증가했다.

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마스 크 등 방역 물품이 가장 많이 기탁됐 다.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음식, 전자기기 등이 전해졌으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 하는 의료진을 위한 물·간식 기부도

잇따랐다.

다만 모금단체에 따르면 이처럼 기 부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기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증가한 모금액 대부분이 기존 연말연시에 기부하던 기업・단체 등에 서 예년보다 기부 일정을 앞당겨 기 부한 내역이다. 이에 올 연말연시엔 경기 침체 등으로 나눔 분위기가 위 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어려운 시국에도 성금을 보내주시 는 손길이 있었다"며 "안정적인 복지 재원 조성을 위해 정기기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연이은 태풍에 황량해진 당근밭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본 가운데 8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당근밭이 폭우에 휩 쓸려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민 1인당 채무 73만원… 전국 2위

지자체 평균보다 14만원 많아 지난해 20만원 이상 급증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이 악화 되고 있다. 더욱이 도민 1인당 채무 도 전국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등 로돌아섰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의 채무는 4936억원 이며, 도민 1인당 채무는 73만6000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 1인당 채무는 2015년 91만9000원에서 2016년 76만8000 원, 2017년 53만8000원, 2018년 53 만8000원까지 줄며 감소세를 보였으 나, 2019년 한해에만 도민 1인당 채 무는 20만원 넘게 급증하며 증가세

무액이 가장 많은 부산(75만3000 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남(61만9000원), 경북(61만9000 측되고 있다.

원), 인천(60만9000원), 서울(57만 3000원), 경기(16만원) 순으로 나타 났으며, 제주지역의 1인당 채무액은 8개 지자체 평균액 59만원보다 14만 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채무액이 증가한 요인은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라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앞으로 도시공원 이는 전국 8개 지자체별 1인당 채 일몰제 등 대규모 재정수요 사업 추 진에 따라 매해 수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도의 누적채무액은 다음으로는 대구(70만1000원), 전 2023년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 이태윤기자

태풍 '바비' 피해 4억8000만원 잠정 집계

공공·사유시설·농작물 피해 '하이선' 은 13·16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내습한 제8호 태풍 '바비'와 관련해 8일 기 준 잠정 집계결과 4억8391만원의 피 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피해 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은 제 유실 0.28ha ▷농작물 567ha ▷산림

주시 일도2동 무단횡단방지 시설 2.1 km 파손, 도내 포구 상치콘크리트 포 장면 유실·파손 등 총 14건 3억 7813만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건 ▷농 림시설7ha, 3개소 ▷수산증·양식시 설 및 수산생물 8건 ▷소상공인 1건 등 총 1억 578만원이다. 또 농경지

작물 1ha 의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제주도는 읍면동을 통해 태 풍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제9호 태 풍 '마이삭'의 경우 공공시설은 9일, 사유시설은 9월 12일까지다.

또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신고는 공공시설 9월 13일, 사유시설 9월 16일까지다.

제주도는 피해접수를 기반으로 복 구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의 밝은 미래, 두민과 함께 데기겠습니다